『젠더와 문화』 제10권 2호(2017), pp. 7-44

연구논문

서구 남성사 연구의 주요 의제들

설혜심*

〈국문초록〉

남성사 연구는 새로운 페미니즘과 여성사의 영향으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 글은 그동안 서구 남성사가 내놓은 주요 성과물들을 남성연구의 주요 테제들과 연결시켜 개괄한다. 1. 여성사 출범의 문제의식이기도 했던 '남성 되살려내기'를 구현한 역사연구, 2. 남성사 고유의 주제라 할 수 있는 남성성의 시대적 변천문제, 3. 코넬(R. W. Connell)이 제창한 복수의 남성성(multiple masculinities)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들, 4. 남성연구의 중흥을 불러일으킨 '남성성의 위기(crisis of masculinity)' 테제, 5. 구조보다는 행위주체성을 주목하는 수행성과 유동성 개념을 적용한 남성사 연구들을 차례로 소개하며 그 특징과 한계를 분석한다.

주제어: 남성사, 남성성, 복수의 남성성, 남성성의 위기, 수행성과 유동성

*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snowlove@yonsei.ac.kr)
ⓒ 2017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DOI - http://dx.doi.org/10.20992/gc.2017.12.10.2.7

1. 들어가며

1996년 마이클 키멜(Michael Kimmel)은 『미국의 남성성』(*Manhood in America*)에서 "미국 남성은 역사가 없다"라고 천명했다. 수많은 유명인들의 전기와 전쟁, 파업, 정당정치 등 남성이 관여한 사건들에 관한 자료는 넘쳐나지만 그런 역사책들이 남성의 역사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키멜은 그런 역사책들이 기술하지 않은, "남자가 남자로 살아가는 경험을 탐구해야 하는" 명제를 '역사에서 여성을 되살려 내는' 페미니스트 학자들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말한다(Kimmel, 1996: 1-2).

키멜이 고백하듯이 남성사는 페미니즘과 여성학의 영향 속에서 시작되었다. 1960년대 후반 '새로운 페미니즘(new feminism)'이 나타나 사회에서의 성차별과 성에 따른 불평등을 인식하는 거시적인 이론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 맥락에서 포괄적 차원의 여성문제를 다루는 여성학(Women's Studies)과 역사학 분야에 특화된 여성사(Women's History)가 등장했다. 여성사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역사서술이 여성을 배제해 왔다고 비판하며 역사 속에서 여성을 되살려내자는 취지를 내세웠다. 1980년대에는 여성 연구 전반에서 생물학적 여성이 아닌 젠더를 탐구의 중심에 놓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 변화는 젠더로서의 여성의 대립쌍인 남성을 주목하는 '남성연구(Men's Studies 혹은 masculinity studies)'를 촉발시켰고, 남성사 역시 그 맥락에서 출현하게 되었다.

남성사는 젠더적 존재로서의 남성을 역사성을 통해 파악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성이라는 젠더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구성물이자, 시대적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 일련의 과정이 여성성을 의식하며 반응해 왔다고 전제한다. 남성사 연구자들은 린 헌트(Lynn Hunt)의 유명한 발언인 '남성사 같은 책은 쓸 필요도 없었다'에 반

발하며 흔히 과거 모든 역사가 남성의 역사라고 알려져 왔지만 주인공은 백인, 지배집단, 이성애자와 같이 정형화된 일부 집단이었음을 지적한다. 이제 그 소수가 아닌 온전한 남성의 역사를 새로이 구성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성사의 일차적 목표가 되었고,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 낸 이상적인 남성성으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주변화 되어왔다는 점을 부각시키게 되었다(설혜심, 2007: 92-93).

1990년을 전후하여 남성성 및 남성과 페미니즘 연구와 남성운동이 급증하게 되었다. 어떤 학자는 남성성 연구의 '골드러시(gold rush)'가 1980년대 말 아카데미에 제도화된 페미니즘과 여성연구 프로그램의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학계에서 페미니스트 동료가 몇 배로 늘어나고 그들에게 훈련받은 학문후속세대들이 남성연구의 선구자가 되었다는 것이다(Newton, 1998: 575). 남성연구는 주로 사회학이 이끌어왔으며 심리학, 정신분석학, 비평이론, 역사학 등이 가세했다. 역사학 분야의 남성성 연구는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내놓았으며, 사회학 등이 제시한 남성성 연구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때로는 주제나 방법론도 차용한다.

이 글에서는 198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구 남성사 분야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들을 살펴본다. 특히 그 성과물들을 사회학 등이 주도해 온 남성연구의 주요 테제와 연결시켜 크게 다섯 개의 아젠다로 구분해 각각의 특징적 논점을 살펴보려 한다. 다섯 개의 아젠다 대부분은 이 분야의 대가들이 추출한 남성성 연구의 주요 의제들을 따른 것이다(Connell, 1995, 2001; Connell and Messerschmidt, 2005; Kimmel, 2013). 이 글에서는 여성사 출범의 문제의식이기도 했던 '남성 되살려내기'를 구현한 역사연구에서부터, 남성사 고유의 주제라 할 수 있는 남성성의 시대적 변천 문제, 코넬(R. W. Connell)이 제창한 혁신적인 의제였던 복수의 남성성(multiple masculinities)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들, 남성연구의 중흥을 불러일으킨 '남성성의 위기(crisis of masculinity)' 테제, 그리고 구조보다는

행위주체성을 주목하는 젠더의 수행성과 유동성 개념을 적용한 남성사 연구들을 차례로 소개하려 한다.

남성사 분야의 성과물들을 다섯 가지 카테고리에 배치하는 방식은 온전히 필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저작물은 실제로는 여러 아젠다를 다루고 있지만 하나만 언급된 경우도 있고, 표면적으로 특정 아젠다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필자가 부각시켜 다룬 연구도 있다. 가능한 범위에서 주요 성과물들을 모두 다루려 했지만 필자가 놓친 중요한 성과물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학계에서조차 남성사의 발전과정을 조망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라서 필자의 주관이 매우 강하게 개입된 연구사적 정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성사의 업적들을 포괄적으로 훑어보려는 이 노력이 향후 남성사가 발전하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남성사 연구의 주요 의제들

1) 남성 되살려내기

남성사가 출범할 당시 학자들은 남성사 서술이 여성사에 비해 전통적 역사서술과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과거의 '보편사'에서 남성은 언제나 일반적인 주체로 그려져 왔고, 역사에서 다루었던 모든 중요한 사안들은 이미 정형화 된 남성성과 강하게 연결되어왔기 때문이다. 조이 파(Joy Parr)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 남성성은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되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를 알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남성성의 특성은

> 언제나 무엇인가에 그저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장인의 기술, 식민지 행정관의 부담, 사제의 현명함, 혹은 기업가의 통찰력 같은 것에 말이다(Parr, 1995: 367).

따라서 남성사의 당면한 문제는 남성성, 남성이 누려온 특권과 그것을 작동케 하던 매커니즘을 해체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 출발점은 남성사가 기존의 '남성 중심의 역사'와 다른 점이자 페미니즘이나 젠더사의 연장선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였다. 이에 학자들은 종종 전통적 역사에서 소홀하게 다루었던, 그리고 여성사에서 '여성의 주제'로 부각시킨 가족, 결혼, 육체, 섹슈얼리티와 같은 주제를 적극적 탐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방법론상으로 남성사는 여성사의 '남성판'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여성사가 맞닥뜨렸던 한계와 비슷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할 연구는 1999년 리사 윌슨(Lisa Wilson)이 펴낸 『남자의 마음』(*Ye Heart of a Man*)이다. 식민지 시대 미국 동부에 살던 남성들의 삶을 조망한 작업으로, 남성의 가정성과 결혼, 나아가 그들이 느꼈던 역할 행동에 따른 부담감을 그려내었다. 윌슨은 마치 집단 생애사(生涯史)처럼 남성의 삶의 '전형적인 단계'를 묘사해 나간다. 책의 초반부에서는 직업과 배우자를 찾는 일에 열중하는 청년단계를, 중반부는 남편으로, 아버지로, 가장으로서의 기혼남성의 삶을,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은퇴하거나 홀아비가 된 남성의 말년을 그려내는 것이다. 이 작업은 그동안 역사학의 주재료로 쓰였던 공문서나 널리 알려진 사료군이 아닌, 출판되지 않았던 원사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이루어졌다(Wilson, 1999).

이 연구의 모델이 된 것은 로렐 대처 울리히(Laurel Thatcher Ulrich)가 쓴 『산파일기』(*A Midwife's Tale*)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에 살았던 한 산파가 27년 동안 작성한 일기를 토대로 삼은 생애사 연구로, 미시사적 방법론을 통해 미 공화국 초기 의료의 다양한 단면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재

구성한 수작이다. 울리히와 마찬가지로 미국 초기시대를 주목한 윌슨은 그 시대가 일반적으로 '농업적 가부장제' 사회로 묘사되며 무시당하곤 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젠더사가 너무 자주 남성을 단면적인 권력 브로커로서만 묘사했다고 비판하면서 "가정적 세계에서 남성의 목소리를 되살려내겠다"고 선언했다(Wilson, 1999: 5). 그가 파악한 미국 식민지시대 남성다움은 '쓸모 있음(usefulness)'에 의해 규정되던 것이었다. 남성의 쓸모란 구체적으로 생산적인 직업, 시장,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수행되어야 했던 자질이자 책무였는데, 그런 남성의 삶과 정체성이 형성되던 핵심적인 곳이 바로 가정이었다는 주장이다.

윌슨이 결혼과 가정을 성인 남성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설정했던 사실은 역사학적 시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역사가 남성을 가정보다는 사회라는 공적 영역의 전담자로 그려왔던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매우 새로운 접근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사실 별개영역 이데올로기(separate-sphere ideology)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18·19세기 영미 페미니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별개영역 모델이 적합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당시의 남성성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는 내용도 한 부분을 차지했다(Francis, 2002: 638). 즉, 별개영역이라는 개념틀 자체가 수동적이고 복종적이며 가정에 묶인 여성성의 대척점으로 남성성의 전형을 설정했기 때문에 빅토리아 시대 남성들이 차갑고 권위적인 존재로 그려졌다는 지적이었다. 당시 남성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공적인 삶(public life) 이외에도 가족과 환경을 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존 토시(John Tosh)는 빅토리아 시대 남성성의 다른 단면을 밝히겠다는 의도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여 1999년 『남성의 자리』(*A Man's Place*)를 펴냈다. 그는 에티켓 매뉴얼, 이혼사례기록, 일기, 편지 등을 분석하여 19세기 중간계급 가정에서 남성들의 존재를 되살려냈다. 당시 남성들은 남

편, 아버지, 가장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해 냈고, '남녀의 별개영역, 별개행동이라는 일상적 경험 속에서도 부부 사이의 동료애(companionship)는 결혼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다. 19세기 영국에서는 낭만주의적 유산과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남자들에게 아내와 자식들에게 애정을 보일 것을 장려했는데, 토시는 그런 애정을 '심오한 애착(profound attachment)'이라고 불렀다. 물론 한계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출산현장에 동석하는 것은 부부사이의 동지애에서 나온 행동이라기보다는 가정의 중요한 행사에서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제스추어였다고 풀이하는 식이다(Tosh, 1999).

토시는 남성의 가정성이 빅토리아 시대 중반에 최고조에 달했고 곧 '가정성에서의 탈출(flight from domesticity)'이 일어났다고 본다. 1870년대가 되면 중간계급의 결혼이 더 늦어지는 경향이 생겨났고, 제국주의의 영향으로 군사적이며 용맹한 하이퍼 남성성이 칭송되면서 미혼으로 남는 사람이 많아졌다. 소년소설에서는 남성들만으로 구성된 동성사회를 그려내는 일이 유행하기도 했다. 안네 샤를로트 트렙(Anne-Charlott Trepp)과 같은 독일학자들도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1850년을 전후하여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독일의 산업혁명과 '시민 전형(Bourgeois stereotype)'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경쟁과 성취의 압박이 증가하자 남성들은 삶의 우선적 목표를 일에 설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9세기 후반이 되면 '직업과 가정간의 까다로운 균형'이 완전히 직업상의 의무 쪽으로 옮겨지게 되었다(트렙, 2001: 78-79).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가정에서 남성의 존재감을 되살려내고 섬세하고 다정한 남성성을 재발견하는 작업에 문제를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갖는 의미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다. 가정 내에서의 젠더적 관계, 즉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어떻게 배치되는가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가정에서의 남성을

되살려내는 작업은 여성사의 수정주의적 방법론을 동원해서 남성만의, 또 다른 반쪽의 역사를 서술해 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타났다(Ditz, 2000: 168-169). 나아가 마틴 프랜시스(Martin Francis)는 가정성의 강화가 곧 가부장제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또한 남성의 가정성이란 계급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둘러싼 사회적 환경, 즉 정치체계의 성격이나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가정성에 대한 남성의 반응은 매우 복잡하고 양가적이어서 19세기 내내 강약을 반복했다는 말이다. 프랜시스는 특정 시대에 더 강한 가정성을 보였다는 도식화된 내러티브보다는 개인이 가정의 책임과 도피 사이에서 끊임없이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Francis, 2002: 643-645).

한편, 최근에는 가정성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소비'와 같은 분야에서도 남성을 되살려내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18세기부터 계몽주의와 결합한 새로운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사치를 정치적 악덕과 연결시키며 여성성의 중요한 덕목으로 규정했다. 지배계급 남성들은 스스로 그런 부정성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면서 플뤼겔(John Carl Flügel)이 명명한 바 있는 '위대한 남성적 금욕(Great Masculine Renunciation)'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Flügel, 1930). 하지만 산업화는 생산과 소비의 지속을 요구했고, 남성들은 소비경제 속에서 스스로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아내나, 딸, 정부 등 여성을 '의례적 소비자(Ceremonial Consumer)'로 만들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소스타인 베블렌(Thorstein Veblen)은 '대리적(代理的; Vicarious)'이지만 '소비하는 일'이 여성의 몫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베블렌, 1995: 97-121).

그런데 캐시 피스(Kathy Piess) 같은 학자들은 남성들도 수많은 상품들의 소비자였음을 부각시킨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성애적 남성성이 문화적으로는 남성의 화장품 사용을 부정했지만, 실제로는 '세면도구(toiletries)'와

같은 이름을 달고 다양한 화장품들이 소비되었다는 것이다(Piess, 1989: 2). 스윈키키(Mark A. Swiencicki)도 여성의 영역으로 규정된 소비 같은 주제에서는 남성과 관련해서는 연구되지도, 이론화되지도 않는다고 비판하며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소비의 젠더성에 집중한 나머지 오히려 '생산적 남성과 소비적 여성'이라는 정형화된 이분법적 틀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Swiencicki, 1998: 774). 하지만 20세기 전환기에 남성들은 건강식품, 스포츠 용품을 다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했고, 모험소설을 애독했는가 하면, 심지어 의상에서조차 여성보다 2.5배 정도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는 남성을 되살려내는 작업에서 남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섹터들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해 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2) 이상적 남성성의 시대별 변천

코넬(R. W. Connell)은 "젠더를 역사적 산물이자 역사의 생산자로 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젠더 실천은 현실을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존재 형성적인데, 여기서 핵심은 사회적 현실이 시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코넬, 2010: 130). 이처럼 남성성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경험하는 남성성의 출발점을 찾는 일이 역사학자들에게는 중요한 과제일 터였다. 토마스 퀴네(Thomas Kühne)는 1800년 경 남성 중심적인 인문·사회·정신과학의 기초가 확립되면서 '인간'을 남성과 동일시하고, 남성적인 것을 '보편적이며 인간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고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남성은 보편화된 타자로서 인지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남성은 여성에 대한 지배로서 정의되는 가부장제의 집단적인 수익자로 분류되게 되었다는 것이다(퀴네, 2001: 24).

비슷한 맥락에서 조지 모스(George Mosse)도 오늘날 남성성의 이상형이 대략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등장했다고 추론

한다(모스, 2004: 13). 그는 18세기 말에 형성되기 시작한 부르주아 사회가 만들어 낸 남성성이 기존의 귀족적인 남성성을 대체했다고 본다. 여기서 핵심은 18-19세기에 분류와 체계화의 열정에 사로잡힌 과학이 개체가 아닌 유형으로서의 스테레오타입, 즉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서의 남성을 주목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스테레오타입은 유대인이나 흑인과 같은 부정적인 남성 스테레오타입으로 인해 강화되어갔다. 1990년대까지 지속된 이 남성성은 1차 세계대전이나 새로운 정치적 운동 등의 여파에 유연성을 발휘하며 적응해 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리오 브로디(Leo Braudy)는 현대적 남성성이 시작된 시점을 17세기로 끌어올린다. 17세기는 데카르트가 인식의 개인적 토대를 강조한 시대로, '자아(self)'로 시작하는 다양한 복합어들이 등장한 시대이자 민족국가와 집단적 정체성이 처음 형성된 시기였다. 브로디는 모든 철학적 질문의 배경이 신으로부터 남자의 본성으로 옮겨가는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유럽 사상에 '남자'라는 집합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서 브로디는 다른 학자들과는 차별적으로 이 시기에 전쟁이라는 요소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남성성이란 수많은 것들의 교차점에 놓여있는 것으로, 서로 별개로 생각되는 문제들 — 섹슈얼리티와 첨단 기술, 시민권과 인종주의, 전쟁 수행과 남자들이 스스로를 규정하거나 타인에게 규정당하는 방식 — 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전쟁과 남성성은 "17세기를 거쳐 20세기의 거대전쟁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로 남자들이 완전한 존재가 될 미래와 남자들이 완전했던 향수 어린 과거를 융합하는 상호 의존적인 신화"였다(브로디, 2010: 28).

> 과거에는 성직자적 금욕 생활과 군사적 우애가 공통명분을 제공했다면, 17세기에는 남성의 이성애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더 나아가 아예 남성성과 이성애를 호전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남성성을 논하게 되었다. 즉

> 소년은 어떻게 해서 남자로 만들어지는가, 남자의 속성이란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 답은 부족 간 전쟁에서나, 나아가 봉건 시대의 전쟁에서는 비교적 간단했다. 그러나 17세기에는 이런 물음들이 더욱 공공연히 쟁점화되었고, 바로 이시기에 오늘날에도 뜨거운 논쟁거리인 성 발달과 성 분화 문제가 처음으로 공식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브로디, 2010: 312).

그가 보기에 17세기 전후 세계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전쟁과 전쟁 전의 세계를 공공연하게 고찰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는데, 전시에는 용인되는 남성 행동의 유형이 줄어들고, 전쟁이 끝나면 그로 인해 진공상태가 초래되는 상황이 나타났다(브로디, 2010: 265).

그런데 가장 영국사에서는 제국주의가 가속화되는 19세기 후반기에 확연히 다른 남성성이 나타났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영국 남성성의 초창기 연구자들은 특히 1850-1940년대 만연했던 남성성 신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문학, 교육, 정치와 도덕률을 분석하여 남성성 신화의 특성과 발달, 전파과정을 해부하곤 했다(Mangan and Walvin, 1987). 19세기 중반 영국의 사립학교에서 고양된 남성성은 영어권 세계들로 퍼져나갔고, 제국주의의 기초가 되어 메트로폴리탄적 남성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남성상은 '[신]제국주의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창출된 것으로, 제국의 쇠퇴와 더불어 점차 희미해져 가지만 1914년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중적 차원에서 다시 강조되는 역설을 드러낸다. 융성한 시절의 강력한 남성성이 곧 물질적 풍요와 직결된 개념이었기 때문이다(Roper and Tosh, 1991).

이런 논의들은 18-19세기 이후 등장해 오늘날까지도 전형으로 작동하는 '근대적'인 남성성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남성사 연구가 발달해 가면서 역사학 고유의 특징인, 특정 사안을 다른 시기로 확장해 보려는 탐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맥락에서 18세기 이전 시기 남성성을 고찰하는 연구

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주로 집안에서의 가부장의 권위에 집중하는 양상을 띠었다. 엘리자베스 포이스터(Elizabeth Foyster)는 16-17세기 영국 사회의 남성의 정체성을 분석하면서 모름지기 존경받을만한 남성이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여성을 통제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부장의 통제를 강조했다(Foyster, 1999).

같은 맥락에서 앤서니 플레처(Anthony Fletcher)도 근대 초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던 방식에 주목했다. 다양한 사료를 토대로 근대 초 젠더를 둘러싼 정신적 세계와 일상적 경험을 재구성한 결과 플레처는 남성의 지배가 성서적 토대로부터 좀 더 내면화되고 세속적인 것으로 옮겨갔다는 결론을 내린다. 즉 1500년대에는 여성의 예속이 종교적 권위와 체액론에 의해 규정되었지만 17세기에 새로운 지식체계와 결합되면서 새로운 정당성을 획득해 갔다는 것이다. 17세기를 분기점으로 보는 시각은 브로디와 비슷하지만 플레처는 특히 두드러진 지성들의 업적이 세계관에 끼친 영향을 주목한다. 자연의 예속이라는 새로운 지식 모델을 세우고 자연을 지배하는 이성을 남성과 연결시킨 프랜시스 베이컨과 신경이론을 통해 여성의 연약함을 '과학적'으로 규정한 토머스 윌리스(Thomas Willis, 1621-1675, 영국의 신경해부학자) 등이 그들이다(Fletcher, 1995).

그런데 바로 그 17세기 후반, 한 시대를 풍미할 매우 다른 남성 캐릭터가 잠깐 등장한다. 랜돌프 트럼백(Randolf Trumbach)은 왕정복고(1660년) 시대 비록 소수이지만 음탕한 난봉꾼이자 양성애적인, 멋 부리고 뽐내는 남성들이 각광받게 되었음을 주목했다. 18세기 초가 되면 이들의 특성이 그 이전 시대부터 존재했던 동성애적 열망과 연결되곤 했는데, 점차로 여성적이고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이 동성애 캐릭터와 합쳐지게 되어 결국 근대에는 배타적으로 '남색자(sodomite)'로 규정되기에 이른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배적인 남성상이란 더 이상 가정에서의 지위나 기독교적

질서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여성과 섹스를 하는 이성애자인가 하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Trumbach, 1991).

흥미롭게도 같은 시기인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에는 대조적인 다른 남성상, 즉 '세련된 젠틀맨'도 사회적 인식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은 난봉꾼 귀족들과는 대조적으로 소탈하고, 배려심 가득하며, 예절바른 중간계층들로 여성들과 우아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경제적 원천이었던 무역과 상업은 사회적 교류의 새로운 개념을 요구했고, 자기 통제와 정중한 미덕이 새로운 형태의 매너와 결합되어갔다(Carter, 2001). 하지만 18세기 후반부터는 이들 젠틀맨의 세련미가 의문시되면서 남성의 과묵함이 찬양되기 시작한다. 더욱이 여성들과의 교류 자체가 남성성을 위협하는 듯 비춰지면서 결국 남자들 끼리만의 조우를 통해 남성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업이 생겨났다(Cohen, 1999). 캐런 하비(Karen Harvey)는 이처럼 18세기 후반에 전통적인 가부장적 남성성이 부활하는 현상을 두고 여성과 점잖은 교류를 하던 세련된 남성성이란 근대초와 19세기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짧은 이상(理想)이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유럽 역사에서의 남성성이란 변화보다는 오히려 연속성을 더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이다(Harvey, 2005: 311).

3) 남성성의 위기

1990년대 남성연구가 크게 발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남성성의 위기(crisis of masculinity)'라는 개념 때문이었다. 학자들은 20세기 말부터 더욱 뚜렷해진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확대, 경제적 재구조화, 임금하락,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조직화된 페미니즘의 도전, 게이 해방운동 및 백인 · 중산층 · 이성애적 남성성에 대한 비판이 남성성 자체에 위기를 가져왔고, 그 결과의 하나로 남성성 연구가 급증하게 되었다고 본다(Newton,

1998: 576).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남성성의 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으며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항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사회학자들은 그 이유를 남성들이 노동현장에서 여성을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었고,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인 노동이 몰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엄기호, 2014).

그런데 역사학에서는 남성성의 위기가 나타난 시점을 보다 다양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원인들을 탐구하는 한편, 그로 인해 오히려 남성성이 강화되게 되는 역설적 결과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린다 샤이어스(Linda M. Shires)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강한 남성성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19세기 초중반의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요인이 작동한 탓이었다고 말한다. 군왕의 자질이 부족했던 조지 4세와 윌리엄 4세의 통치, 게다가 1837년 어린 빅토리아의 왕위 등극으로 이어지는 1830-40년대는 1832년 선거법 개정안과 여권운동과 같은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또한 복음주의 신앙의 부흥, 노동 쟁의, 공교육의 대중화, 직업 전문주의에 대한 인식 형성과 같은 사회 운동들은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자본주의와 함께 구시대적 체제와 위계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정력적이고, 현명하며, 믿음직한 아버지 상은 필연적으로 당대의 문화적 요구가 되었다"는 것이다(Shires, 1992: 403). 이처럼 가부장으로서 강인하며 강력한 모습을 갖춘 19세기 남성성의 전형은 곧 식민지에 투사되게 된다.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된 영국 신사는 곧 국내적으로는 차별화된 성별과 계층의 영역을 유지하고, 국외적으로는 계급에 의거한 인종과 계층의 서열을 확립하기에 이른다(박형지 · 설혜심, 2004).

한편, 브로디는 『기사도에서 테러리즘까지: 전쟁과 남성성의 변화』(*From Chivalry to Terrorism*)에서 강력한 남성성의 등장을 전쟁의 위협과 연결시킨다. 특히 1890년대는 유럽 제국의 프로파간다가 널리 퍼져나가면서

전쟁의 위협이 커져간 시기였다. 그 이전에도 전쟁은 양 젠더에게 자신의 역할에 부합하는 '미덕'을 요청했지만 이제 국가가 적극 나서서 날카로운 젠더 구분선을 장려하게 되었고, 역사를 구성하는 주체이자 이끌어가는 주체로 오로지 남성만이 강조되었다. 그런 현상이 가장 대규모로, 가장 집약적으로 표출된 사건이 1차 세계대전이었는데, 그 전쟁은 '남녀에게 각각 부여된 젠더적 역할의 시험장'이기도 했다(브로디, 2010: 545). 1차 대전 후 남성의 명예에는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 그 결과로 "남성과 남성의 시민 정체성 사이, 그리고 남성과 남성성 사이의 관계들이 전례 없이 노골적인 화두로 대두"했고 파시즘은 특히 남성 정체성을 더 날카롭게 연마하는 일환으로 성별을 분극화시켰다(브로디, 2010: 653).

> 남녀를 양극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추긴 것은 그저 앞으로 올 전투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아니었다. 일부 가장 주목할 만한 단순화된 남성 표준은 패배에 대한 반응에서 비롯되었다. 그렇지만 그 근저에 놓인 원칙은 동일했다. 전쟁은 창과 마찬가지로 벼려지고 간결한 남성성을 요했으며, 일탈은 곧 패배를 뜻했다(브로디, 2010: 510).

그런데 키멜은 남성성의 위기란 특정 시점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항상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남성성이란 것이 사실 결코 완벽하게 제시될 수도, 해결될 수도 없고 심지어 끊임없는 의심의 대상이라서 지속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 남성성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은 눈부신 기술 발전과 군사적 성공, 일상의 무미건조함의 이야기면서도 동시에 "언제나 두려움, 불안과 실패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Kimmel, 1996: 8). 그 연장선에서 최근 키멜은 남성들이 사회적 권력을 누리는 동시에 사적 차원에서는 무력감을 느낀다는 역설에 주목하기도 한다. 남성

적 규범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그것을 재생산하는 과정에서조차 그런 힘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남성의 패배감과 박탈감을 강조하는 것이다(Kimmel, 2005).

키멜의 『미국의 남성성』은 처세서로부터 만화책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남성성의 발달과 변천을 추적한 작업이다. 그는 미국 역사에서 이후 계속된 남성성의 위기가 발생한 시점으로 19세기 초반을 주목했다. 그 이전 시기 미국의 남성성은 토지소유자나 독립적인 수공업자, 자영업자 혹은 농부라는 직업적 정체성에 근거하고 있었는데, 19세기 초반에 일어난 산업혁명은 그런 전통적인 정의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왔고, 미국인들은 이제 요동치는 시장경제 속에서 훨씬 덜 안정적이지만 잠재적으로 보상이 더 큰 경제적 성공에 남성성을 투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의 축적과 신분, 그리고 지리적 · 사회적 이동성에 의해 측정되는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 훨씬 더 고풍스러운 가부장제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시각이다(Kimmel, 1996: 17).

산업화와 미국 경제의 관료체제화, 그리고 서부 프론티어의 유혹은 미국인에게 남성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했다. 위기감을 느낀 남성들은 골드러시를 맞아 캘리포니아로 몰려갔다. 또한 여성이 공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남성들 사이에는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가 유행하기 시작한다. 소년들을 '진정한' 남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보이스카우트의 열풍,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카우보이가 중요하지 않은 시점에 카우보이 신화가 고양되면서 말달리고 총을 쏴 대는 남성성이 전파된 것도 그런 위기감에 대한 반작용이다. 1차 세계대전의 열광적인 참여는 문화의 '여성화'와 '허약화'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있다. 심지어 적대적 환경 속에서도 활약을 멈추지 않았던 수많은 형제회나 KKK(Ku Klux Klan)등도 남성성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Kimmel, 1996).

20세기 중후반이 되자 여성해방운동과 베트남전의 패배가 '진정한 남성

성'에 대한 새로운 숭배를 촉발시켰다. 수전 제퍼즈(Susan Jeffords)는 베트남전에 관한 영화와 소설, 그리고 논픽션을 분석하여 미국의 대중문화가 영웅적 남성성을 통해 '미국의 재남성화(remasculinization)'를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담론들은 전쟁패배의 원인을 군인이 아닌 '여성화 된' 정치가에게 돌리면서 참전용사들을 정부에 의해 희생당한 것으로 그려냈다. 참혹한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와 유사한 남성적 유대를 획득했는데 그런 형제애는 계급, 인종, 심지어 국적까지도 초월하는 일종의 '남성들만의 동맹'이었다. 여성은 매춘부나 집단강간의 희생자로만 등장할 뿐이어서, 여성의 주체성이 말살됨과 동시에 남성들 사이에는 이성애적인 집합적 남성성이 구축되었다. 베트남전에 대한 대중문화의 재현방식이 전쟁극복이라는 명제 아래 여성 위에 군림하는 가부장적 남성의 권력을 다시 조형해 냈다는 분석이다(Jeffords, 1989).

남성성을 끊임없는 확인과정으로 본 키멜은 지난 두 세기동안 미국 남성들이 '자수성가한 남자(The self-made man)'로서의 이상에 근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상태였다고 진단한다. 그 노력은 불안감과 함께 지속되어온 것으로, 그 불안이 결국 분노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살핀 저서가 『성난 백인남성』(*Angry White Men*)이다. 키멜은 분노한 백인남성들이 인종적 · 성적 소수자, 정부의 관료, 페미니스트 등을 표적으로 삼으며 그들에게 미국의 쇠퇴에 대한 책임을 돌리게 되었다고 본다(Kimmel, 2013). 그는 이런 분노와 갈등에 대해 일종의 해결책을 내놓는데, 남성들 스스로가 남성적 본질에 관한 감각을 버려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평등은 어떤 제로-섬 계산에서 남자들에게 '손실'이 아니다: 그것은 윈윈(win-win)이다"라면서 말이다(Kimmel, 2013: 283).

그런데 남성성의 위기라는 개념에 대해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격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위기이론은 특히 미국의 이성애적 남성성을 불변의, 다른 역사적 시기에도 고정된 것으로 보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

다. 이런 맥락에서 코넬도 위기라는 말이 어떤 일관성 있는 시스템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남성성의 '분열(disruption)'이나 '변환(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코넬, 2010: 84).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성성의 위기 연구들이 종종 다시 인간을 '보편적 남성'으로 회귀시킨다는 점이었다. 애초에 남성성 연구가 페미니즘이나 좌파자유주의자들의 비판적인 정치적 원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성의 위기이론은 아주 '효과적으로' 여성과 학술적 연구에서 페미니즘을 태동시킨 텍스트들을 몰아내곤 한다. 브라이스 트라이스터(Bryce Traister)는 "미국 남성성이 위기 이론 안에서 놀고 있다"면서 위기 이론이 미국식 문화 비평을 지배적인 남성연구로 되돌리는 경향이 있다며 그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Traister, 2000: 276).

4) 복수의 남성성과 위계

남성성 연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은 모든 남성성을 단일한 권력패턴으로 본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대한 일종의 해결책으로 나타난 것이 '복수의 남성성(multiple masculinities)' 개념이다. 즉, 단일한 남성성을 지양하고 여러 남성성을 가정하며 그들 사이에 분명한 위계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에 대한 논의를 꼽을 수 있다. 이 개념은 오스트레일리아 고등학교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리포트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지며, 1987년 코넬이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용어를 차용하며 이론적으로 발전시켰다(Connell, 1987).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이상적인 가치, 즉, 권위, 육체적 강인함, 용기, 명예와 같이 문화적으로 지배적인 남성성의 이상(ideal)을 일컫는다. 이를 중심으로 공모적 남성성(complicit masculinity), 대항적 남성성(competitive masculinities), 저

항적 남성성(protest masculinity) 등 다양한 관계가 성립하며, 위계적으로 가장 아래에 종속적 남성성(subordinated masculinity)이 설정되는데, 동성애적 남성성이 이에 속한다.[1)]

코넬의 이런 개념은 페미니스트 가부장제 및 그와 관련된 논쟁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변화하는 가부장제 내에서 남성의 역할을 주목한다. 여기서 남성의 역할이란 대타적으로 '남성적이지 않은 것' 즉 여성성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코넬의 이론은 곧 큰 반향을 일으켜 사회학 분야에서 남성지배적인 작업장, 학교, 마을 공동체 등의 현지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가 양산되었고, 그 연구들은 복수의 남성성의 존재와 젠더관계의 복잡성을 제시하곤 했다(Connell and Messerschmidt, 2005: 831). 그런데 역사적 변화에 대한 뚜렷한 의식 없이 남성성에 헤게모니 개념을 적용할 경우 이 개념은 문화적 통제의 단순한 모델로 환원될 가능성이 컸다. 이에 대해 코넬은 어디에도 단 하나의 남성성 패턴이 존재하지 않다고 보며, 다른 문화나 역사적으로 다른 순간에 남성성이 다르게 존재한다고 보았다(Connell, 2001).

역사학 분야에서 복수의 남성성 개념을 찾자면 먼저 19세기 영국의 사립학교를 다룬 연구들을 꼽을 수 있다. 마이클 로퍼와 토시(Michael Roper and John Tosh)는 『남자다운 권리행사』(*Manful Assertions*)에서 19세기 이래 영미권에서 벌어진 남성성의 다양한 체현과정에 대해 다루면서, 빅토리아 시대 도덕적으로 무장한 기독교적 남성성이 사실은 여성억압을 위한 자기만족적 위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책의 많은 부분은 영

1) 우리 학계에서는 competitive masculinities와 protest masculinity에 대한 번역에서 아직 합의된 바가 없고 두 개념 다 '대항적 남성성'으로 표기되곤 한다. 이 글에서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과 달리 완력으로 힘을 과시하는 경쟁적 남성성을 '대항적 남성성(competitive masculinities)'으로, 아내의 수입에 의존해 살면서 사나운 개를 키우는 등을 통해 남성성을 보상하려는 행위를 '저항적 남성성(protest masculinity)'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국의 사립학교(public school)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립학교라는 공간이 약한 성(sex)과 낮은 계급 모두를 지배하는 '남성상'을 만드는 일종의 수련장이었음을 드러낸다. 남성적인 헤게모니는 여성의 정복 혹은 예속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여성적 행동이라고 가정되는 것을 집요하게 캐내고 풍자하는 정교한 의식이 발달했는가 하면, 과도하고 심지어 그로테스크한 성적 지배력을 둘러싼 판타지가 넘쳐났다(Roper and Tosh, 1991: 13-15).

사립학교는 철저히 남성만으로 구성된 공간이다. 키멜은 "남성성은 많은 경우 남성끼리만 교제하는(homosocial) 상호작용을 통해 정의된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동료애, 동지애 같은 것들, 그리고 동성애 혐오증도 포함"한다고 밝혔다(Kimmel, 1996: 8). 그런데 아마도 이런 요소들 저변에 구조와도 같이 작용한 것은 남성들 사이의 위계였을 것이다. 사립학교에는 프리펙트-페깅(prefect-fagging) 시스템이라고 불린 명문화된 상하관계가 존재했고, 구성원 사이에는 엄격한 위계와 의식화된 코드, 그리고 계율과 질서가 강조되었다. 그곳에서 소년들은 힘 있는 사람의 보호를 늘 필요로 했으며, 카리스마 있는 동료를 열렬히 추종하는 영웅 숭배적 현상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단합하고 저항하는 '대항적 남성성'을 창출하기도 한다. 사립학교는 심지어 비밀결사적인 요소를 띠었고, 그 결과 배타적인 형제애로 똘똘 뭉친 엘리트 집단을 양성했는데, 그곳에서의 퇴학이란 곧 남성성의 추락, 사회적 실패를 의미했다(설혜심, 2004: 99-114).

여성이 부재한 이 공간에서는 동성애적 장면이 많이 발견된다. 아직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어머니로부터 떨어졌다는 정서적 박탈감과 거친 남성들만의 세계에서 생존해 나가야 하는 압박감, 강렬한 성적 욕망을 경험하는 청소년기에 여성과의 접촉이 차단되어 이른바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은 모두 심리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사

립학교는 사실 시릴 코널리(Cyril Connolly)가 주장한 '영구적 사춘기 이론(theory of permanent adolescence)'의 완벽한 배양지로, 19세기 영국의 중·상류층의 남성성이란 기본적으로 동성애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다(Connolly, 1988). 즉, 그곳에서 사춘기를 보낸 남성들이 평생 그 환경과 관계맺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다. 사립학교에서는 '남성적 사랑(manly love)'이 고양되었는데, 고대 그리스-로마적 커리큘럼에 근거한 이 사랑은 이성애를 특징짓는 육체적 관계보다는 정신적 교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남성들 간의 사랑'에는 강한 여성혐오적인 성격이 배어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즉, 남성적 사랑은 동성애라는 범주 안에서조차 우월성을 확보하려한 개념으로, 어느 한쪽이 여성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남성적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사랑으로 인식해야 한다(설혜심, 2004: 209).

한편 차용구는 『남자의 품격』을 통해 드물게 중세에 초점을 맞춘 남성성 연구를 내놓았다(차용구, 2015). 12세기 말 플랑드르 인근의 한 성직자가 작성한 가문의 역사를 토대로 아르눌이라는 기사의 생애를 '남자다움'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재구성한 것이다. 중세 문화의 맥락에서 기사의 삶은 "훈육되는 남성성, 저항하는 남성성, 군사적 남성성, 지배하는 남성성, 좌절된 남성성 등 다양한 남성성을 분출시킨" 과정이었다(차용구, 2015: 454). 훈육의 과정에서 아르눌은 남성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비난받기도 했다. 이 시기 명예는 지극히 젠더화된 개념으로, 한 남성의 위상, 권위, 입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즉 명예의 손실은 곧 남성성의 실추이자 사회적 고립이나 배제와 직결되었다(차용구, 2015: 200). 지배자로서 아르눌은 재정상황이 어려워지자 동료와 하위 기사들에게 관대해야 하는 덕목으로 인해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 묘사된 남성성의 다양한 양태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정식 기사가 된 아르눌에게 아버지가 손쉽게 통치권을 내어주지 않는 장

면이다. 아들은 기사 서임을 받고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명예와 굴욕을 감수해야 했는데, 특히 아버지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강할수록 아들은 여자나 하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하급자로서의 열등감을 느껴야 했다. 아르눌과 아버지 사이의 갈등은 결국 다른 백작이 개입하고서야 무마되는데, 아버지는 오랜 망설임과 설전 끝에 성의 통치권을 아들에게 내어준다. 차용구는 "역사 속의 부자관계는 보통 정치적 맥락 속에서 해석되곤 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아들들의 음모와 반란을 '대항적 남성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차용구, 2015: 199).

저자는 아르눌을 둘러싼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남성성을 드러내는 모습도 놓치지 않았다. 상류층 남성들이 자기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남성성을 보여주었던 반면, 하층민 남성들은 단순하지만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남성성을 표출했다. 변장한 백작 앞에서 목동들이 백작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처럼 권세가들의 폭력적 남성성에 대항해 풍자와 해학을 구사했던 것이다(차용구, 2015: 209-210). 통치자 집단은 심지어 백성들과는 다른 종교관을 구축했을 뿐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달라야 했다. 아르눌이 살던 고장은 본래 플랑드르어가 사용되던 곳이었지만 12세기 말부터 귀족사회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양층언어(diglossia: 한 사회에서 상위와 하위계층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현상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차용구, 2015: 406-407).

남성성 담론과 실천의 기제들은 비단 남성 집단 내에서만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젠더 위계에 따라 여성과 약한 남성, 청소년과 노년층, 유색인종 등의 타자를 주변화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한다. 데이비드 앤더슨(David Anderson)은 아일랜드 대기근과 독립운동 시기에 영국의 문화·정치적 엘리트들이 지녔던 특권적인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아일랜드 남성들을 비합리적이고, 허풍이 심하고 '여성적' 감성을 가진 '열등한' 사람들로 그려냈다는 사실을 주목한 바 있다(Anderson, 1998). 므리날리니 신

하(Mrinalini Sinha) 역시 1883년 상정된 일버트 법안(Ilbert Bill: 인도제국의 지방에서 영국인이 영국인 판사에 의해서만 재판받던 특전을 폐지하려던 법안)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기 통제적이고 '남성적인' 영국인과 감성과잉의 '계집애 같은' 벵갈인을 대비하는 담론이 양산되었다고 주장했다(Sinha, 1995).

그런데 설혜심은 제국주의의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 설정된 남성성의 위계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을 발견한다. 제국주의는 서구의 비서구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정복뿐만 아니라 성적 착취의 과정으로, 이는 서구 남성과 비서구 여성이라는 젠더적 위계의 양 극단 사이에 설정되었던 관계였다. 제국주의자 남성과 식민지 여성 사이의 성적 접촉은 실제적 정복과 정착과정뿐만 아니라 '과학'의 탈을 쓴 다양한 인종주의적 담론을 통해서 정당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흑인과 아랍인 남성의 엄청나게 큰 성기와 성적 능력에 대한 신화와 정보는 백인 남성에게 말하지 못할 위협이 되었고, 결국 백인 남성들은 성적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도피'하며 절제를 강조하는 새로운 남성상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흑인과 아랍인 남성의 엄청난 성적 능력에 대한 환상은 결국 공식적인 제국주의가 해체된 후에도 해결되지 못한 채 백인 남성들에게 잠재적인 열등감의 원천으로 남게 되었다. 성의 영역에서 '물리적 정복'은 가능했으나 진정한 우월성을 확보하지 못한 백인 남성의 불안감을 분석한 이 연구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 뒤에 숨겨진 열등성을 파헤친 한편, 그것을 감추기 위한 전략들을 분석한 것이다(Sul, 2002; 설혜심, 2003).

코넬의 '헤게모니적 남성성' 개념은 많은 연구의 길잡이가 되었지만 곧 학자들은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먼저 패트리샤 마틴(Patricia Y. Martin)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일관적이지 않게 적용된다는 점을 비판했다. 어떨 때는 고정적인 남성성을 이야기하다가 다른 때는 특정 시대와 장소에서 지배적인 유형을 일컫는다는 것이다

(Martin, 1998). 더 심각한 것은 이 이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남성들이 별로 없고, 엄청난 사회적 권력을 쥔 사람들조차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요소들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개념이 실제로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묘사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았다(Wetherell and Edley, 1999). 또 다른 학자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오직 구조만을 보면서 주체를 보이지 않게 한다면서 "개인은 그 속에서 실종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Whitehead, 2002: 93).

이런 비판에 대해 코넬은 실제 남성의 삶과 반드시 긴밀하게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조형될 수 있다고 항변한다. 이런 모델들은 여러 방식으로 이상과 판타지, 욕망을 광범위하게 퍼트린다면서 말이다(Connell and Messerschmidt, 2005: 838). 하지만 코넬은 이 개념의 골격이 된 젠더이론이 달라졌고, 더욱 풍성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이 개념을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면서 다양한 남성성들이 종족공동체, 지역, 계급 같은 사회적 집단에서 어떤 식으로 분배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코넬, 2010: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넬은 아직까지는 헤게모니적 남성성 개념을 폐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구적 시장의 탄생과 그에 부응하는 세계정치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시장을 분석하는 의제에서는 젠더가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여전히 젠더화된 이 세계에는 암묵적인 젠더 장치가 있다"(코넬, 2010: 21)는 것이다. 경제의 탈규제화는 경영자와 기업가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권력을 부여하게 되었고, 이제 그 집단은 지구경제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지니게 되는데, 코넬은 그것을 '초국적 비즈니스 남성성'이라고 명명했다.

> 그 세계는 남성 지배적이지만 변화를 강하게 의식한다. 스트레스가 많고 격렬한 노동과정은 경영자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창조하면서 서로 감시하

> 게 만들어 젠더 보수주의를 지향하게 한다. 부유하지만 불안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자신의 삶을 일종의 기업처럼 다루고, 자산은 물론 몸과 감정도 의식적으로 '경영'하는 경향이 있다(코넬, 2010: 22).

초국적 남성성에 대한 코넬의 정의에서 한 가지 특기할 요소는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경제적 지구화로 인해 이 남성성이 세계와 젠더질서에서 다양성을 관용하는 태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코넬, 2010: 22 참조).

5) 수행성과 유동성

복수의 남성성 이론은 남성사를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었지만 이것이 이성애 중심적으로 진행되어왔다는 사실은 여러 학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미 여성연구에서는 남성/여성이라는 성 정체성을 본질적 정체성으로 이해하는 젠더 이분법의 한계가 문제시되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서 남성과 여성의 젠더불평등뿐만 아니라 여성 간 차이를 구성하는 나이, 인종, 종족, 국가, 계급, 성적 지향성, 장애 여부 등이 여성의 현실을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교차이론은 젠더가 인종, 섹슈얼리티, 계급, 국적과 같은 다른 사회적 범주들과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정체성을 다룬다. 교차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개인은 젠더 정체성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른 사회적 정체성들을 획득하고 변화하면서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인 정체성이나 입장을 갖게 된다(김현미, 2014: 86-87).

젠더 이분법과 젠더 단일주의에 대해 가장 신랄한 비판을 퍼부은 사람들은 퀴어 이론(queer theory)가들일 것이다. 젠더를 [위계적] 이분법으로 이해하는 경우 여성, 레즈비언, 게이 남성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부장제와 이성애 남성의 성적 특권이란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다. 퀴어 이론가들은 남성성 연구가 이성애 중심으로만 진행되어왔다고 비판하며 게이 남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남성성을 다루는 퀴어 연구가 상당히 많이 발달하게 되었다(Maynard, 1998). 이들은 섹슈얼리티와 젠더가 매우 복합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주목하며 그 둘을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제기된 개념으로 수행성(performity) 이론을 꼽을 수 있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젠더 정체성이란 문화적으로 인정받은 젠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그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불확실해지고, 행위의 양식화된 반복을 통해 외부적 공간에서 제도화되는 유동적 정체성이다"라고 주장했다(Butler, 1990: 140).

『제국주의와 남성성』은 19세기 영국의 젠더형성 과정을 수행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 작업이다. 이 책은 조운 리비에어(Joan Riviere)의 매스커레이드(masquerade: 가면극) 이론과 카자 실버만(Kaja Silverman)의 『가장자리의 남성 주체성』(*Male Subjectivity at the Margins*) 등의 논의를 적용하여(Riviere, 1986; Silverman, 1992), 영 제국에서 피식민인들 뿐만 아니라 영국인들 역시 심리적 압박 속에 놓여 있었으며, 영국성을 드러내는 특정한 행동 양식을 수행해야 했음을 그려냈다. 1857년 인도항쟁 이후 식민지에서 영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제국의 권위가 추락하기 시작하자 영국인들은 더 강력한 남성성을 창출하고 그것을 '퍼포먼스'해야 했다. 새로운 정년 제도를 통해 제국에서는 더 이상 노쇠하고 무기력한 서양인을 구경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강인하고 이성적이며 늠름한 젊은 식민지배자의 모습은 거꾸로 거울 속의 자기 모습처럼 영국인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내면화되게 되었다. 결국 인도에서 규정된 영국 남성성은 식민지뿐만 아니라 영국 본토에서도 젠더에 관한 풍습과 전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형지 · 설혜심, 2004).

19세기 후반 영 제국의 한쪽 끝인 남아프리카에서는 앞서 언급한 교차성, 수행성과 유동적인 성 정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펼쳐지고 있었다. 여성이 부재한 광산촌에서 서양인들은 허드렛일을 시키기 위해

원주민 소년들을 고용했는데, 이들은 가사를 돌봤을 뿐만 아니라 종종 남색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흔히 '소년마누라(nkotshane, boy wives)'라고 불렸고, 아류결혼과 같은 관행이 생겨났다. 광산 노동자들은 근처의 도시나 농장 등에서 여성들을 만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년들을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가 성병에 대한 우려 이외에도 '광산결혼'의 안락함을 즐겼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Hyam, 1992: 98-99). 소년마누라들은 광산에 머무는 동안은 '직업'처럼 여성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지극히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소년마누라들은 여성의 젠더를 수행해야 하는 구조 속에 별다른 저항 없이 귀속되었는데, 이는 인종과 계급 같은 더 큰 제국주의적 틀이 작용했기 때문이다(박형지 · 설혜심, 2004: 170-172).

초운시(George Chauncey)의 『게이 뉴욕』(*Gay New York*) 또한 남성의 정체성과 섹슈얼리티가 유동적이고 수행적임을 잘 드러낸 선구적 연구다. 초운시는 오늘날의 게이문화의 시작점을 18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19세기 초 뉴욕에 만연했던 게이 하위문화를 복원했다. 이성애 중심적인 도시 개혁 프로그램의 중심지였던 YMCA호텔이 실제로는 게이들이 모여드는 사랑방 역할을 했고, 백인 중간계급이 자신들이 배척하려던 사회적 악덕을 할렘(Harlem)으로 몰아넣었던 바람에 그곳은 "호모섹슈얼 메카"가 되어버렸다(Chauncey, 1994: 244). 중간계급 남성이 동성애에 반해서 자신의 이성애주의를 규정했던 반면, 하층민 남성들은 놀라울 만큼 폭넓은 젠더와 성적 정체성을 구사했다. 게이 남성은 여성과도, 남성과도 자유롭게 섹스를 나누었으며 그러한 행위가 자신의 남성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많은 역할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물론 초운시의 초점이 지나치게 게이 커뮤니티에 맞춰진 탓에 게이들의 당당한 모습이 성급한 일반화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세기 중반까지도 대부분의 게이 남성들은 자신들만

의 은밀한 암호를 사용해 성적 파트너를 찾곤 했고, '정상적 남성'으로 보이는 복장과 행위를 '수행'하며 이중생활을 꾸려갔기 때문이다.

한편 새라 카익소(Sarah A. Kaiksow)는 남성들이 남성적인 이상과 규범을 내면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이 곧 남성적 주체성이 "계속 도전받고, 심리학적으로 연약한 공간임"을 드러내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카익소는 "삶의 실제 경험은 문화적 이상보다 훨씬 지저분하다"라고 강조한다(Kaiksow, 2008: 62). 실제 삶에서의 남성성의 실현이란 나름의 절충과 타협, 선택의 과정을 동반했다는 것이다. 웨더릴과 에들리(M. Wetherell and N. Edley)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런 남성성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남성들은 그 복수의 의미들 가운데 상호작용에 필요한 것을 선택한다고 보았다(Wetherell and Edley, 1999). 몇몇 실험적 연구들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남성성의 우선순위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했다. 심지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이성애적 규범조차도 특정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후퇴하는 사례들을 드러낸 것이다. 에릭 앤더슨(Eric Anderson)은 게이임을 밝힌 운동선수가 탁월한 경기를 보여줌으로써 동성애자라는 비난을 피해가는 사례를 주목했다. 앤더슨은 이를 '남성성 보험(masculinity insurance)'이라고 부르며, 뛰어난 운동선수라는 자체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특성을 체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게이라는 정체성을 가려준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런 종류의 남성성 보험은 게이 선수가 자신의 팀원들 사이에서 동성애적 욕망을 표현하지 않을 때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단서가 따라붙는다(Anderson, 2002).

남성성 형성에서의 선택과 배제, 절충과 타협의 과정을 그려낸 역사학적 연구로는 단연 앵거스 맥라렌(Angus McLaren)의 『남성성의 재판들』(*The Trials of Masculinity*)을 꼽아야 한다. 맥라렌은 "과거에 어떻게 정상적이고 변태적인 남성성이 만들어졌는지 보겠다"(McLaren, 1997: vii)고 선언하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법률과 의학에서 젠더문제가 연관된 재판

들을 분석했다. 그가 주목한 시기는 젠더를 둘러싼 전통적인 기준에 엄청난 도전이 일어난 시기였다. 여성참정권 운동, 초기 페미니스트의 활약, 노동계급 여성의 임금노동 추구와 상업사회의 도래 등이 공적, 사적 영역에서 젠더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멋대로인 여성들'을 처벌하려는 가부장적인 시도들은 거꾸로 그 행위의 주체들인 남성들에게 감시와 통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미 사라져버린 채찍질과 같은 신체형을 재도입하려는 영국의 캠페인이 결과적으로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들 가운데 '성적 변태들'을 향하게 된다.

맥라렌의 저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20세기 초 브리티시 콜럼비아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남성들에 대한 재판일 것이다. 법정에서는 종종 남성성과 관련된 '명예'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는데, 예를 들자면 원하지 않는 동성애적 구애를 받거나 부인의 간통을 발견한 상황에서 벌어진 살인과 같은 사안들이었다. 이런 재판들에서는 남성들 사이에서 남성성에 대한 인식을 둘러싼 상호작용, 즉 법률가들 나름의 원칙과 공동체 자체가 해석하는 남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절충, 타협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흥미롭게도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남자답게 행동했는가?"라는 기준이었다(McLaren, 1997: 111). 폭력에 대한 사법적 경계가 분명한 사회였지만, 힘에 대한 찬양이 아직 강한 시대에 힘에 의존하는 행위라는 것은 남자들 사이에서는 훨씬 더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살인자들은 남성적 이미지를 어필하여 재판관과 배심원의 동정을 받아 무죄선고를 이끌어내곤 했다.

3. 나가며

이 논문에서는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생산된 남성사 연구의 주요 성과들을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남성성 연구의 주요 의제들과 연결해 살펴보았다. 최신 연구의 흐름을 가능한 최대로 반영하려 했지만, 지면의 제약과 필자의 능력부족 탓에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아쉬운 점은 최근 제기되는 '육체로의 전환(bodily turn)'에 대한 성과들을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육체와 사회적 과정의 상호작용은 초창기의 남성성 연구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였고, 모스의 『남자의 이미지』(*The Image of Man*)처럼 뛰어난 업적도 나왔지만 점차로 이 분야에서 육체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젠더를 주목하는 시각의 변화가 담론과 표상(representation)에 초점을 맞추면서 육체나 섹스와 같은 육체적 행위를 '몸' 자체에서 분리시키는 기묘한 효과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많은 학자들은 육체가 남성성의 구성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시 주목하고자 한다(Connell and Messerschmidt, 2005; 코넬, 2010: 87-95; Baron, 2006).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최근 비서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남성성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 혹은 전지구적(Global) 관점에서 서구 남성성 연구가 이룩한 성과와 문제의식을 여러 지역에 적용하거나 지역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주목하는 한편, 지구화로 인한 남성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작업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서구가 창출해 낸 '남성성의 위기'라는 개념이 중동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에 동원되는 현상이다(Amar, 2011). 이런 연구들은 기존의 서구의 남성성 연구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수많

은 주제와 내용을 통해 향후 남성성 연구를 엄청나게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사'가 곧 쌍방향적인 교류를 통해 이루어져 온 만큼, 전지구적 남성성 연구들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서구 중심적인 남성성 연구의 틀 자체를 새롭게 조형해야 할 필요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세계적 젠더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현존하는 젠더체계들 사이의 상호작용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코넬, 2010: 20).

참고문헌

김현미(2014), “젠더와 사회구조”, 『젠더와 사회: 15개의 시선으로 읽는 여성과 남성』, 한국여성연구소 엮음, 파주: 동녘, 63-95쪽.

모스, 조지(2004), 『남자의 이미지』, 이광조 옮김, 서울: 문예출판, Mosse, G.(1996), *The Image of M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박형지 · 설혜심(2004), 『제국주의와 남성성: 19세기 영국의 젠더 형성』, 서울: 아카넷,

베블렌, T.(1995), 『한가한 무리들』, 이완재 · 최세양 옮김, 서울: 통인, Veblen, T.(1899),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An Economic Study of Institutions*, New York: Macmillan.

브로디, 리오(2010), 『기사도에서 테러리즘까지: 전쟁과 남성성의 변화』, 김지선 옮김, 서울: 삼인, Braudy, L.(2003), *From Chivalry to Terrorism*, New York: Alfred A. Knopf.

설혜심(2003), “제국주의와 섹슈얼리티”, 『역사학보』, 제178집, 231-262쪽.

_____(2004), “19세기 영국의 퍼블릭 스쿨, 제국, 남성성: 『톰 브라운의 학창시절』을 중심으로”, 『영국 연구』, 제11권, 89-120쪽.

_____(2007), “서양 여성사의 역사”, 『학림』, 제28집, 71-99쪽.

엄기호(2014), “남성성의 위기와 한국의 남성문화”, 『젠더와 사회: 15개의 시선으로 읽는 여성과 남성』, 한국여성연구소 엮음, 파주: 동녘, 363-387쪽.

울리히, 로렐 대처(2008), 『산파일기』, 윤길순 옮김, 서울: 동녘, Ulrich, L. T.(1990), *A Midwife's Tale: The Life of Martha Ballard Based on Her Diary, 1785-1812*, New York: Alfred A. Knopf.

차용구(2015), 『남자의 품격: 중세의 기사는 어떻게 남자로 만들어졌는가』, 서울: 책세상.

코넬, R. W.(2010), 『남성성/들』, 안상욱 · 현민 옮김, 서울: 이매진, Connell,

R. W.(1995), *Masculinities*, Cambridge: Polity Press.

퀴네, 토마스(2001), "성의 역사로서 남성의 역사", 『남성의 역사』, 토마스 퀴네 외 지음, 조경식 · 박은주 옮김, 서울: 솔, Kühne, T.(Hg.)(1996), *Männergeschichte–Geschlechtergeschichte*, Frankfurt am Main: Campus, pp. 21-49.

트렙, 안네 샤를로트(2001), "가정에서의 남성성", 『남성의 역사』, 토마스 퀴네 외 지음, 조경식 · 박은주 옮김, 서울: 솔, Kühne, T.(Hg.)(1996), *Männergeschichte–Geschlechtergeschichte*, Frankfurt am Main: Campus, pp. 51-79.

Amar, P.(2011), "Middle East Masculinity Studies: Discourses of "Men in Crisis," Industries of Gender in Revolution", *Journal of Middle East Women's Studies*, 7(3), pp. 36-70.

Anderson, D.(1998), *Mansex Fine: Religion, Manliness and Imperialism in Nineteenth-Century British Cultur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Anderson, E.(2002), "Openly Gay Athletes: Contesting Hegemonic Masculinity in a Homophobic Environment", *Gender and Society*, 16(6), pp. 860-877.

Baron, A.(2006), "Masculinity, the Embodied Male Worker, and the Historian's Gaze",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 69, pp. 143-160.

Butler, J.(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Carter, P.(2001), *Men and the Emergence of Polite Society, Britain, 1660-1800*, Harlow: Longman.

Chauncey, G.(1994), *Gay New York: Gender, Urban Culture, and the Making of the Gay Male World, 1890-1940*, New York: Basic Books.

Cohen, M.(1999), "Manliness, Effeminacy, and the French: Gender and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Character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in *English Masculinities, 1660-1800*, eds. T. Hitchcock and M. Cohen, London: Longman, pp. 44-62.

Connell, R. W.(1987), *Gender and Power*, Sidney: Allen and Unwin.

_____(1995), *Masculinities*, Cambridge: Polity Press.

_____(2001), "Understanding Men: Gender Sociology and the New International Research on Masculinities", *Social Thought and Research*, 24(1/2), pp. 13-31.

_____and J. W. Messerschmidt(2005), "Hegemonic Masculinity: Rethinking the Concept", *Gender and Society*, 19(6), pp. 829-859.

Connolly, C.(1988), *The Enemies of Promise*, London: Andre Deutsch.

Ditz, T. L.(2000),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The History of Men, the History of Gender in the 1990s", *Reviews in American History*, 28(2), pp. 167-180.

Fletcher, A.(1995), *Gender, Sex and Subordination in England, 1500-180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Flügel, J. C.(1930),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Hogarth Press.

Foyster, E.(1999), *Manhood in Early Modern England: Honour, Sex, and Marriage*, Harlow: Longman.

Francis, M.(2002), "The Domestication of the Male? Recent Research on Nineteenth- and Twentieth-Century British Masculinity", *Historical Journal*, 45(3), pp. 637-652.

Harvey, K.(2005), "The History of Masculinity, Circa 1650-1800", *Journal of British Studies*, 44, pp. 296-311.

Hyam, R.(1992), *Empire and Sexuality: The British Experienc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Jeffords, S.(1989), *The Remasculinization of America: Gender and the Vietnam Wa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Kaiksow, S.(2008), "Subjectivity and Imperial Masculinity: A British Soldier in Dhofar, 1968-1970", *The Journal of Middle East Women's Studies*, 4(2), pp. 60-80.

Kimmel, M. S.(1996), *Manhood in America: A Cultural History*, New York: Free Press.

_____(2005), *The History of Men: Essays on the History of American and British Masculiniti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_____(2013), *Angry White Men: American Masculinity at the End of an Era*, New York: Nation Books.

Mangan, J. A. and J. Walvin(eds.)(1987), *Manliness and Moralit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rtin, P. Y.(1998), "Why Can't a Man Be More Like a Woman?: Reflections on Connell's Masculinities", *Gender and Society*, 12(4), pp. 472-474.

Maynard, S.(1998), "Queer Musings on Masculinity and History", *Labour / Le Travail*, 42, pp. 183-197.

McLaren, A.(1997), *The Trials of Masculinity: Policing Sexual Boundaries, 1870-193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ewton, J.(1998), "White Guys", *Feminist Studies*, 24(3), pp. 572-598.

Parr, Joy(1995), "Gender History and Historical Practice", *Canadian Historical Review,* 76, pp. 354-376.

Peiss, K.(1989), "Of Makeup and Men: The Gendering of Cosmetics", The Material Culture of Gender Conference(Winterthur Museum).

Riviere, J.(1986), "Womanliness as a Masquerade", in *Formations of*

Fantasy, eds. V. Burgin, J. Donald, and C. Kaplan, London: Methuen, pp. 35-44.

Roper, M. and J. Tosh(eds.)(1991), *Manful Assertions: Masculinities in Britain Since 1800*, London: Routledge.

Shires, L. M.(1992), "Patriarchy, Dead Men, and Tennyson's *Idylls of the King", Victorian Poetry*, 30(3/4), pp. 401-419.

Silverman, K.(1992), *Subjectivity at the Margins*, New York: Routledge.

Sinha, M.(1995), C*olonial Masculinity: The 'Manly Englishman' and 'Effeminate Bengli'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Sul, H.(2002), "Orientalism in America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Portrayals of Marriage Guides", *AJWS*, 8(2), pp. 31-52.

Swiencicki, M. A.(1998), "Consuming Brotherhood: Men's Culture, Style and Recreation as Consumer Culture, 1880-1930", *Journal of Social History*, 31(4), pp. 773-808.

Tosh, J.(1999), *A Man's Place: Masculinity and the Middle-Class Home in Victorian Englan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Traister, B.(2000), "Academic Viagra: The Rise of American Masculinity Studies", *American Quarterly*, 52(2), pp. 274-304.

Trumbach, R.(1991), "Sex, Gender, and Sexual Identity in Modern Culture: Male Sodomy and Female Prostitution in Enlightenment London", *Journal of the History of Sexuality*, 2, pp. 186-203.

Wetherell, M. and N. Edley(1999), "Negotiating Hegemonic Masculinity: Imaginary Positions and Psycho-Discursive Practices", *Feminism and Psychology*, 9(3), pp. 335-356.

Whitehead, S. M.(2002), *Men and Masculinities: Key Themes and New*

Directions, Cambridge: Polity Press.

Wilson, L.(1999), *Ye Heart of a Man: The Domestic Life of Men in Colonial New Englan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논문 투고일: 2017.09.23, 심사 확정일: 2017.11.20, 게재 확정일: 2017.11.25)

〈Abstract〉

The Major Agendas for Western Masculinity Studies

Sul, Hea-sim*

The study of masculinities appeared in the 1980s as a response to the influence of New Feminism and women's history.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history of masculinities, focusing on 5 agendas developed by masculinity studies: 1, the historical re-approaches to make ordinary men visible, in response to the establishment of women's history; 2, changes of dominant masculinity with periodization; 3, historical cases revealing multiple masculinities as advocated by R. W. Connell; 4, the crisis of masculinity in historical writings, which prompted the revitalization of men's studies; and 5, men's studies from the perspectives of performity and fluidity, focusing on behavior subjectivity rather than structure, and analysing its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Key words: history of masculinities, masculinities, multiple masculinities, crisis of masculinity, performity and fluidity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Yonsei University